



입법계품의 이념(理念) ②

입법계품은 내용 전체가 보현행을 설하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는 부처님을 모시는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을 상수로 하는 500인의 보살마하살들의 경지를 설명하면서 “모두 보현의 행원을 성취하여 경계가 결림이 없으니 모든 부처의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다”라 하고 있다. 이는 보살마하살들이 모두 보현의 행원을 성취한 이들이란 말이며 궁극적인 보살행이 보현의 행이라는 것과 함께 이를 통해 모든 부처의 세계에 무애자재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현의 행원은 보살마하살들만이 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입법계품에서 “세존의 주위에 운집한 시방의 모든 보살과 그 권속들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과 서원 가운데서 나왔다”하고 있는 것 또한 보현행으로써 보살행을 대표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이다.

입법계품은 선재의 구법과정을 통하여 입법계의 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편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입법계의 법이 바로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보

리심을 발한 후에 보현행을 빨리 원만 성취하는 법을 묻자, 문수보살은 선지식을 찾아가도록 한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찾는 수행과정은 보현행의 탐구에 있고, 최후에 보현보살을 만나 그의 설법을 듣고 보현의 행원과 부사의한 해탈경계를 성취하여

삶으로 구현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현행에서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믿고 여래의 지혜와 자비에 귀의하는 것이 요청된다. 보살행은 여래의 덕을 실현해가는 것이며, 여래의 덕은 보살행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귀의(歸依)의 대상이 되는 여래의 덕은 귀의하는 보살에 모두 나타나서 보현행으로 되고, 보살은 보현행을 닦아 여래의 덕에 동참(同參)하여 그것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보현보살은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의 구체적인 여래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현행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보살행이 아니라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덕을 실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인 것이다.

보현행, 부처님 대신 중생구제 실현

끊임없이 대비이타 서원 일으켜야

마침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은 대비이타의 대승보살행인 보현행을 주목적(主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부처님에 대해 설한 것이라고 이해해왔지만, 그 근본정신을 살펴보면 보현행이라는 보살의 수행을 설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보살행을 가지고 부처님을 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방세계에 충만한 법신(法身)인 여래의 거룩한 덕은 보살의

보현행에서는 대비이타의 서원(誓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서원은 부처님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을 공경 찬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본받아서 일체중생을 위해 살아가려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서원은 행(行)을 일으키고, 행은 서원을 실현시킨다. 이러한 서원에 의해서 현실세계에서의 생활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삶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보살행이 나오게 된다. 이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며, 보살은 서원을 끊임없이 일으켜 보살행을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드디어 법계로 들어가게 된다. 입법계품에서 한결같이 보현보살의 덕을 찬탄하고 또한 원행(願行)을 강조하는 것은 보현보살의 원행을 보살행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현행을 흔히 보현행원이라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선재동자의 구법과정은 문수보살에서 시작해서 보현보살에 이르러 마무리되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가 뒷받침된 올바른 신앙에 의해 진실의 세계를 확인하고, 그 세계를 실현하려는 여러 가지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은 반야의 지혜에 의한 보살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증(實證)해 나아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는 깨달음이란 것이 현실세계 속에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53인 선지식들이 설하는 법은 소승불교인처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자각해 수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현실의 중생세계를 떠나서 일체의 번뇌를 끊어야 얻는 해탈 열반을 설한 것도 아니다. 도리어 보현행원을 실천하여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요, 번뇌를 끊지 않고 현실생활 속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설하니 그야말로 부사의한 해탈경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에는 소승의 성문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를 선양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수정되는 순간부터 마음 지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맥더걸은 쥐에게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빠져 나오는 법을 가르치는 실험을 하였다. 출구를 잘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년 전기 쇼크를 가하여 다시 제 길을 가도록 유도하였다. 처음 훈련을 할 때는 쥐들이 미로를 빠져 나오는 법을 빨리 습득하였고, 다음 세대는 더 빨리 습득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세대별로 실수의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맨 처음 세대는 평균 250회의 실수를 하였고, 22번째 세대는 평균 22회의 실수를 하였다. 맥더걸은 이것을 DNA 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원

같이 무명이 행(行)의 의지에 의하여 제 정신을 가다듬어 새 출발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식(識) 혹은 중유(中有)라고 하며 따라서 12연기에서는 행(行)은 식(識)을 낳는다고 말한다. 죽은 사람의 마음인 중유(中有), 즉 식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정자를 하나로 합칠 때 함께 합쳐서 수정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이 성립되면 난자와 정자에 의하여 하나로 합쳐진 것은 태아의 육체가 되고, 식(識)은 태아의 마음이 된다. 이것을 12연기에서는 식은 명색(名色)을 낳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명색(名色)의 명(名)은 마음을 말하며, 색(色)은 물질(物體)을 말한다. 명색으로 시작된 태아는 열 달 동안 자궁 속에서 성장하면서 눈, 귀, 코, 혀, 피부 및 뇌 등 육처(六處)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것을 12연기에서는 명색은 육처를 낳는다고 말한다. 갓난아기가

육체 소멸해도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12연기 법칙 유전적 영향관계 설명

승이와 새에서도 관찰된다고 했다.

불교에서는 삼합(三合)의 원리에 의하여 사람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이것을 불교의 12연기의 법칙에 의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셨다. 먼저 죽은 후의 과정을 관찰한 결과, 육체는 사라지지만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무명(無明)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무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을 때의 습(習)이 발동하여 다시 몸을 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 즉 행(行)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것을 12연기에서는 무명(無明)은 행(行)을 낳는다고 한다. 이와

태어나서 1~2세가 되면 육처(六處),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그 본성에 의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된다. 이 접촉을 불교에서는 촉(觸)이라 하며 이것을 12연기에서는 육처(六處)는 촉(觸)을 낳는다고 말한다. 아기가 3~5세가 되면 자신의 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외부 세계의 현상을 접촉(觸)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지각, 즉 수(受)라고 한다. 이때부터 사람은 개체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즉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서 즐거운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을 12연기에서는 촉(觸)은 수(受)를 낳는다고 말한다. (계속)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늘 한결같이라

도 닦는 이들이여! 대장부가 또 무엇을 의심하느냐? 눈 앞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누구냐? 이것을 붙잡았으면 곧 그대로 작용할 뿐 문자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하니,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뜻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깨릴 법이 없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흘러가는데, 흐르는 그곳이 잠으로 아득하구나. 흐름을 따라 본성을 확인한다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하였다.

다. 바로 지금 이것에서 떠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이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지금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생각에 휩싸여서 과거·현재·미래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보이는 색깔과 모양에 속박되어서 색깔과 모양을 따라

리와 말과 몸이 속박되어 끌려 다닌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지금 이것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벗어나야만 허망한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몸은 여기 있으나 생각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과 같으며, 몸은 여기 누워 있으면서 과거의 온갖 장소를 돌아다니는 꿈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허망한 환상에 쌓여 있으므로 매 순간 순간이 진실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여도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 다른 참된 것을 찾아서 늘 헤매고 다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다.

있으며, 붙잡고 있으며, 견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으며, 느끼고 있으며, 욕망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으며, 읽고 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이렇게 있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위에 항상 나타나서 변함이 없는 이것을 확인하라. 마치 형형색색의 사물이 나타나 변화할 때에 변함없이 빛이 그 위에 있듯이, 온갖 모양의 물결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 변함없이 물이 그 자리에 있듯이, 온갖 경험의 세계가 나타나 사라지는 변화 속에서 이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며, 참된 나 자신이다. 이 진실한 나 자신이 분명하여 흔들림이 없다면, 세상의 온갖 풍파가 모두 닦쳐 오더라도 나는 늘 그대로 변함없을 뿐이다.

자,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변함 없는 자신이 분명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어 의심이 없습니까? 늘 한결같은 자리에 흔들림 없이 있습니까?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과

■김태완 선생의 <공감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6-456-8957(강보명) http://www.mindfree.net/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있어야

다니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들리는 소리와 말에 구속되어서 소리와 말에 끌려 다니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몸의 모양과 느낌에 매달려서 몸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과 색깔과 모양과 소

망상에 쌓여서 망상을 따르는 삶이 바로 허망한 삶이요, 진실을 알아서 매 순간 순간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바로 참된 삶이다. 진실한 삶을 살려면 진실에 머물러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진실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보고 있으며, 듣고



그림 · 문병성